

Robert Vannoy 박사, 킹스 강의 14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엘리야와 엘리사, 절대 연대기

2. 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1) 엘리야의 첫 등장 – 열왕기상 17:1-6 2) 사르밧의 과부 – 열왕기상 17:7-24

우리는 지난주 전체 세션을 이 사역의 처음 두 하위 항목에 대해 보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이다. 그것은 개요의 2페이지에 있는 Ahab 항목에 있습니다. “2.d”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입니다. “1”은 “엘리야의 첫 등장, 왕상 17:1-6”입니다. 그리고 “2”는 “사르밧의 과부, 왕상 17:7-24”입니다. 나는 그 자료에 대한 구속적 역사적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두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로 MB Van't Veer의 저서, 엘리야에 대한 논의인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My God is Yahweh)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작업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개요의 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 길이 멀고 세션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그 자료를 더 이상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2페이지 하단의 "E"까지 앞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합의 역할은 그 직후부터입니다.

3)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 열왕기상 18:4) 이세벨에서 도망한 엘리야 그러나 그 전에 “3”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 이야기 중 가장 친숙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서너 번은 갈멜에서 승리한 직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엘리야의 도망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여 호르 엡 산 곧 시내

산으로 갔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1-8에 나옵니다. 5. 호렙산의 엘리야 – 열왕기상 19:1-18 그 다음 “5”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8절입니다. 그가 호렙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불고 그다음에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적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매우 낙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과 불과 지진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니 11절을 읽어 보십시오. 지나가려고!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뒤에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모세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 속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그는 천둥과 번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강력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엄한 현상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거기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라는 세 가지 일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엘리사에게 기름부음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일이 행해졌으나 엘리야가 여기에서 받은 이 사명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성취되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언급된 일인데, 그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기름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열왕기하 2장에서 볼 수 있고, 엘리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출발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베엘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 6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겹옷으로 요단 물을 가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9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희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하라” 엘리사는 “당신의 영을 갑절이나 상속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실 때에 네가 보면 네 것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영을 두 배로 상속받게 하소서”? 나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배 더 효과적이거나 두 배 더 훌륭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 배의 몫”이라는 표현이 장자가 두 배의 몫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속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용어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 것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를 보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는 그의 겹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돌아갔고, 이전에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물이 그에게도 갈라졌습니다. 그가 실제로 후계자임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서 계승하라는 엘리야의 세 번째 사명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일련의 사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 장에는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바로 12절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불수레가 나타나고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 표현이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표현이 그를 하늘로 데려간 불말과
 불병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맥락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가요? 재 뭐래?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이
 “엘리야야, 너는 이 나라의 힘이요 보루니라”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 조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다시 순종과 언약의 신실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에 엘리야는 그 나라의 힘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니라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간 수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에게도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요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고통받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만나러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는 울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엘리사는 같은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엘리사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표현의 의미인 것 같고, 확실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언약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에 순종하도록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나라의 힘은 병거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 중 세 번째 임무를 성취하거나 수행하는 것입니다.

b)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부음 열왕기하 8장 7-15절에서 이 세 가지 임무 중 첫 번째 임무가 성취되는데, 그것이 하사엘에게 기름부음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이것은 물론 엘리야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행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듣고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여쭙어 보십시오.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선물로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보내어 내가 이 병이 낫겠느냐 물었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회복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때까지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왜 우시나요?' 하사엘이 물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를 입힐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너는 그들의 견고한 곳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들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찢을 것이니라'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개 같은 당신의 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벤하닷이 '엘리사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라고 묻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하사엘의 공식적인 기름부음으로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사엘은 스스로 벤하닷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였으며, 시리아 사람들의 지휘 하에 하사엘은 이후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많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임무의 성취입니다.

3)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함 – 열왕기하 9장 세 번째는 열왕기하 9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달리십시오.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13절을 통해 그 성취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당시 왕이었던 요람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예후가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요람도 죽인 매우 중요한 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알 숭배를 없애고 북쪽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임무의 성취입니다. 보자, 그것은 모두 호렙의 엘리야 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렙에서 그에게 세 가지 임무가 주어졌고, 이어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일이 수행된 방식을 봅니다.

이자형.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합의 역할과 그 직후 그의 죽음 이제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통치 하에서 이 하위 요점들의 나머지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Ahab 아래의 "e"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합의 역할과 그 직후 그의 죽음.” 나는 우리 모두가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앗시리아의 손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북왕국을 공격하여 722년에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합 시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722년 이전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앗수르와

조우한 일이 있었다. 즉,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까지 북왕국과 앗수르 사이에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합은 아시리아 기록에 이름이 언급된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언급은 살만에셀 3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비문 중 하나에서는 그가 오란테스 강에서의 전투에서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했다고 말합니다.

오란테스 강은 시리아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만에셀은 그곳의 전투에서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했다고 말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의 연합에 힘을 공헌한 인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만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합은 연합군에 병거 2,000대와 보병 10,000명을 바쳤습니다. 다메섹 출신 하닷에셀은 병거 700대와 기병 700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왕이 아합보다 훨씬 적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의 아합 이야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대기 문제와 카르카르 전투

그러나 비록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산과 추론에 따르면 그것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의 절대 연대를 정하는 데 다소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에

상대적인 날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고 다음 왕이 15년, 다음 3년, 다음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들이 남북을 잇따라 다스린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 연대기를 얻는 한, 어떤 시점에서 열왕기에서 발견한 상대 연대기를 절대 연대기에 대한 고정된 날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몇 분 전에 이야기한 예후의 혁명은 기원전 841년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4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강좌 초반에 저는 여러분에게 *Zondervan Bible Encyclopedia* 에 있는 *J. Barton Payne*의 기사를 읽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연대기의 몇 가지 문제와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문제 중 일부는 데이트에 관한 후기 열왕기에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읽기 섹션에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 모든 추론을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가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당신은 *주석가의 성경 주석*에 대한 논의조차 따르기 위해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Qarqar 또는 Karkar 전투와 왕국 시대의 절대 연대 측정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Edwin R. Thiele의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이 책은 그의 더 큰 작품 *인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숫자(*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Jewish Kings*)에 대한 일종의 대중화이자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작은 책으로 정리했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9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리아의 에포님 목록입니다.” 당신은 그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에포님 목록. 이것은 연도의 이름을 딴 중요한 공무원의 목록입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습은 시대 날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때는 21세기 2012년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연도의 이름을 정하고, 왕이나 고위 관리,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 연도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에포님(Eponym)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이름의 시조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이름은 1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에포님 목록입니다.

아시리아 시조 목록 기원전 892-648 Thiele의 말 인용: “이것은 연도의 이름을 딴 중요한 관리들의 목록입니다. 매년 어떤 국가 관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왕, 현장 사령관, 술 맡은 관원장, 고위 시종, 또는 아시리아 지방의 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도의 이름을 딴 사람이 시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같은 해였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시조 목록이 있으면 아시리아 연도의 연속 목록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시조 목록을 보존했다는 사실은 아시리아 역사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록은 892년부터 64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긴 기간입니다. 이것은 892년부터 648년까지 매년 이름을 나열한 긴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히브리 군주제 시대와 많이 겹칩니다. 시명 목록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제목과 위치, 그리고 다양한 시명 동안의 주요 사건을 알려주는 서판의 수입입니다. 그러한 목록은 853년부터 703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이 시조 목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도(853년에서 703년) 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 Luzanu의 주지사는 시조였습니다. 참조하면 시조 연도가 될 것입니다. Ur Sadalu가 연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르 사달루(Ur Sadalu)가 시조가 된 해에 대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셀 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Semanu의 달에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천문학적 계산은 이 날짜를 763년 6월 15일로 고정시켰는데 , 그 이유는 그의 해에 이 일식이 있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그 해가 몇 년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나 수학적으로는 역으로 계산하여 날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법은 아시리아 연대기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Ur Sadalu가

763년에 설립된 날짜에 대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이름도 마찬가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이 날짜부터 앞뒤로 돌아가서 올해가 몇 년인지 알려줍니다. 물론, 그 해를 일식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92년부터 648년까지 앓시리아 역사의 각 연도에 대해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시조 목록을 작업하고 그로부터 앓시리아 기록의 전체 연도 목록에 대한 고정 날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왕들의 이름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리아 및 이스라엘과 접촉이 있었던 특정 연도입니다. 이들 중 하나는 Daian Assur의 시조입니다. 날짜는 해당 연도의 853년입니다. 살렘네셀 3세 제6년에 그는 지중해 제국의 카르카르 전투에서 서부 왕들의 집단에 맞서 싸웠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이 853년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후, 살만에셀 3세 제18년인 841년, 아다드 므마니의 시조에서 아시리아 기록에 따르면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야아우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왕이 예후라고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841년이 이스라엘 연대기의 주요 날짜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연대기에 따르면 살만에셀 제 6년인 853년부터 그가 카르카르에서

아합과 싸웠던 때 까지는 12년이였다 . 그리고 히브리어 연대기에 따르면 아합의 죽음과 예후의 계승 사이에도 12년이 걸렸습니다. 즉, 아합의 공식 해는 2년, 즉 실제 1년이고, 요람의 공식 해는 12년, 즉 실제 11년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죽은 해는 853년이고, 예후가 통치를 시작한 해는 841년이다. 이는 또한 카르카르 전투가 12년으로 인해 아합의 생애 마지막 해에 벌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연대기에서 두 개의 고정된 날짜를 제공합니다. 물론 고정된 날짜를 얻은 후에는 열왕기의 연대순 체계 내에서 작업하여 다른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구약의 연대기가 달려 있는 고리입니다.”

출애굽 날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점부터 출애굽 후 480년이 되는 솔로몬 통치 4년(왕상 6:1)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480년이 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의 연결을 추적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족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성경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연대순 계산을 위한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연대기에 약간의 빛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 나는 여기 아합의 편에서 이 카르카르 전투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전투는 구약에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에서 오히려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아합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가 왕들의 연합에 속해 있고 아시리아인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상황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는 여호사밋과 함께 아마도 그 연합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던 누군가와 싸우러 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는 당시 다메섹 왕 벤하닷과 싸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람 왕이었습니다.

29절을 읽어 보세요 : “이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밋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밋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니와 당신은 왕의 예복을 입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대장 삼십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대소하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외에는 누구와도 싸우지 말라 하매 병거대장들은 여호사밋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그를 공격하려 했으나 여호사밋이 부르짖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쳤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뽑아 이스라엘 왕의 갑옷 사이를 맞혔습니다. "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벤하닷인 줄 알았는데 이 장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열왕기상 22장 1절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3년에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다메섹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어난 일은 아마도 아합이 살만에셀을 상대로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Shalmaneser는 853년의 Qarqar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확실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승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와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이 연합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다마스쿠스를 약화시켜 아합이 “글쎄, 나는 적어도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영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길르앗의 통치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안에 아합은 여호사밧과 합류하여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올라가서 벤하닷의 군대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무시된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합이 죽었습니다.

3. 아합의 아들 a) 아하시야 좋습니다. 2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3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 그리고 당신은 내가

두 가지 하위 요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통치하는 두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2:40의 아하시야, 그다음 열왕기하 1:18; 그리고 그것은 역대하 20:25-37과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 아하시야가 유다의 여호사밧 제십칠년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통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의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부모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53 절 “그가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그의 아버지의 행위와 같더라”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해상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읽었군요. 그 선박들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무역선단을 만들었으니 금을 얻기 위해 오빌로 가려고 했으나 항해하지 못하고 에시온게베르에서 파선하였습니다.” 49절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항해하게 하라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야는 그의 집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의 내용과 겹칩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가 회복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그론의 바알에게 사람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이교 신으로부터 계시를 구하던 중 엘리야와 마주하게 되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었더라.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이년에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 동생 요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람은 당시 아합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b) 요람 – 열왕기하 3:1-9:25 그래서 그것은 “B”, “요람, 열왕기하 3:1-9:25”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이야기에 관한 많은 자료를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람의 경우에는 아합과 아하시야에 비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성한 돌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의 신성한 돌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거짓 숭배를 따랐습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초청하여 북왕국 의 지배에 반역한 모압과 싸우는데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하였더라... 그 전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의 아하시야가 그들과 합세하여 아람 사람들과 싸운 또 다른 전투에서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하 8:29입니다. 28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그는 시리아 사람들과의 전투 후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예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예후가 선지자의 아들로부터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요람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와서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야도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동시에 즉 기원전 841년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E.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 좋습니다. 시트에 있는 "E"는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왕국 유다로 이동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이 오므리 왕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치하의 유다는 오므리 왕조와 거의 유사하므로 "E"는 시간에 관한 한 실제로 "D"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앞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왕국과 함께 역사의 길을 갔다가 남왕국으로 돌아와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남쪽에서 진행합니다.

10분만 쉬자.

Alicia MacDonald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